



## 10호도 못 내고 휴간했던 학술서평지 다시 일으켜 세우기

2000년 학술 서평지로 나왔다가 휴간에 들어갔던 <아카필로>(ACAPHILO·Academy of Philosophy)가 최근 본격적인 전문 학술 서평지로 새로 태어났다. 5년 전 서강대학교 교수를 그만 두고 사숙을 운영하는 이정우 씨(44·철학아카데미 원장)는 “기존에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지만 이번에는 서평만 실으면서 보다 명확한 색깔의 학술지를 지향했다”고 말한다. 다시 선보인 <아카필로> 8호는 300쪽 분량으로 발행 주기를 기존의 격월간에서 반년간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학술지 발행의 힘겨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잡지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일제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잡지뿐 아니라 글로 이루어진 책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력을 못 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서뿐 아니라 학술서평은 더 외면받게 되죠.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사유하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은 철학아카데미가 맡고 산해출판사를 통해 7호까지 냈던 기존의 <아카필로>는 작자가 누적되면서 휴간을 하게 된 사연을 갖고 있다. 이정우 씨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철학, 사상과 같은 학술분야의 전문 서평지라는 데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물론 그 어려움들은 현재에도 남아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서평지를 완성해 보려는 의욕 하나로 ‘복간’에 나섰다 설명이다. 반년간지로도 운영이 안 된다면 단행본 작업이라도 계속해 보겠다는 게 이 원장의 다부

진 각오다. 다행히 지금의 <아카필로>는 가정주부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강사 등 다양한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복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전문 필진 부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평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데다 본격 학술전문 책을 서평해 줄 필진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짧게는 원고지로 50매, 길게는 100매 분량의 양질의 원고를 써 줄 적당한 필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서평’을 ‘특정 책에 대한 평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서평’은 ‘서평하는 책을 완성시켜 주는 작업’이다. 바둑도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는 것처럼 저자가 발견하지 못했던 책의 장점을 다른 이들이 더 잘 짚어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정우 씨의 생각이다. 결국 서평의 역할은 책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드러내주면서 책을 완성시켜 주는 작업인 것이다. <아카필로>의 철학서 서평 역시 그런 점을 지향한다.

“본격적인 학술서평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많은 반응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더군요. 외국의 경우 학술출판의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흡수하는 경향이 강한데, 우리는 학술출판에 대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철학과 교양서의 서평을 담고 있는 <아카필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정우 씨는 학술출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학술서는 대중성보다는 전문성을 염두에 둔 책이죠. 그래서 상업적인 판매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획 자체가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다른 범주인데 대중적, 상업적인 범주와 연관짓는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는 학술서와 학술 관련 잡지 모두 경제적인 부분이 유지된다면 고가치의 출판연구서가 될 수 있을 거라며 학계와 정부 차원에서 학술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를 바란다 밝혔다. <노마디즘과 꼬뮤니즘>이라는 특집으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의 고원’과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을 비교 분석한 <아카필로> 8호에는 한국 학술저서인 <노장철학>(충북대 정세근 교수), <지각의 현상학>(신라대 류의근 교수) 등의 서평이 실려 있고, 해외 학술서적에 대한 서평도 소개되어 있다. ■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